화제의 스포츠 스타

자폐성 발달장애 딛고… 다섯 번 도전 끝 KPGA 투어 정회원 자격 획득… **이 승 민**

세상과 소통, 골프채 한자루로
"내 꿈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출전"

자폐성 발달장애 3급의 프로골프 선수 이승민(20·하나금융지주)이 다섯 번의 도전 끝에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이승민은 지난 2일 군산에 위치한 군산컨트리클럽 부안, 남원코스(파72·7253야드)에서 열린 '2017 제1차 KPGA 투어프로 선발전 B조' 경기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10위에 올라 상위 25명(A, B조 각 25명 선발)에게 주어지는 KPGA 투어프로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2014년 9월 KPGA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그 동안 4차례나 도전해 낙방했다. 5번째 도전 만에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KPGA 투어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예선전 2라운드와 본선 4라운드까지 총 6라운드에 걸친 지옥의 레이스에서 상위 50명 안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본선전은 A조와 B조로 구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조별 25명만이 KPGA 투어프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된 아버지 이명렬(52·현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씨를 따라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특수학교에서 아이스하키를 시작했지만 비장애인과의 단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상이 잦은 점 때문에 하키 스틱 대신 골프채를 손에 잡았다.

5세 어린이 정도의 지능이지만 골프의 매력에 빠진 이승민은 본격적인 선수의 길을 택했고, 골프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흔히들 멘털이 중요하다고 하는 골프는 함께 라운딩하는 선수들의 행동이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승민의 어머니 박지애(51)씨는 함께 경기하는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아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박씨는 "승민이는 골프 치는 게 즐거워 보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코치나 부모는 매순간이 전쟁과도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했고 '과연 승민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안겨줘서 너무 고맙다"며 "아직 경기 속도를 빨리 해야 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승민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승민은 지난해 '제12회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프로암 대회에 특별 초청돼 그가 평소 좋아하는 허인회(30·JDX멀티스포츠), 김재호(36·휴셈)를 비롯한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을 만나기도 했다.

B조 선발전 경기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10위로 상위권에 올라

어머니 박지애씨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매 순간이 전쟁
끝까지 해낸 아들이 자랑스러워"

이승민, "부모님·김종필 프로께
감사드려… 더욱 열심히 할 것"

이승민의 KPGA 투어프로 합격 소식을 접한 허인회는 "정말 장하고 대단한 일이다. 지난해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에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정말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나중에 꼭 함께 라운드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제네시스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며 사회적 귀감이 되는 선수에게 수여하는 'KPGA 해피프렌즈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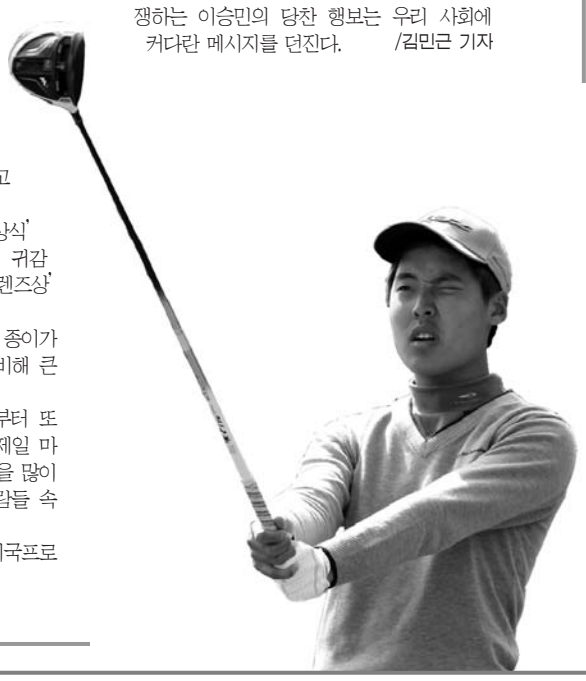
당시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면서 종이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수상 소감을 준비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 박씨는 "장애가 있어서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과 교류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며 "골프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승민이가 사람들 속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모든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와도 같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승민은 매년 일본투어 큐스쿨도 응시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승민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 후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 그 동안 엄마를 힘들게 해 미안하다"며 "김종필 프로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를 안고도 정정당당하게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이승민의 당찬 행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메시지를 던진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10일 개최

전주시는 오는 10일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제5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시국학기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역 동호인들 간 교류활성화와 생활체육인 국학기공의 대중화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일반부와 어르신부, 청소년부로 나눠 단체전과 개인전 등 2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종목은 기본국학기공과 창작국학기공이며, 5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해 합산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시는 이번 대회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국학기공을 알려,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일 체육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체육의 일종인 국학기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호흡과 명상법을 배워 몸과 마음, 정신을 가다듬는 심신단련법이며, 성장기 아동의 집중력과 뇌 발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재용 기자

KIA 최형우, KBO리그 5월 최우수선수 선정

KIA 타이거즈 4번 타자인 최형우(33)(사진)가 KBO리그 5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실시된 KBO리그 출입기자단 투표에서 최형우가 유효표 28표 중 22표(78.6%)를 획득해 4표에 그친 임찬규(LG 트윈스)를 제치고 5월 MVP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더스틴 니퍼트(두산 베어스)와 구자욱(삼성 라이온즈)은 각각 1표씩을 받았다.

최형우가 이날 획득한 22표는 2015년 9월 박병호(당시 넥센 히어로즈)의 25표에 이어 역대 최다 득표 공동 2위다.

최형우가 월간 MVP로 선정된 것은 2011년 8월, 2012년 7월, 2013년 7월, 2016년 9월에 이어 개인 통산 5번째다.

5월 한달 동안 홈런 9개를 몰아친 최형우는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또한 출루율(0.466) 2위, 장타율(0.469) 공동 2위를 차지했다. OPS(출루율+장타율)은 1.115로 1위였다.

최형우는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개인 성적도 성적이지만 팀 성적이 좋아서 더 기쁘다"며 "팀을 위해 자그마한 힘이지만 일조를 했다는 것에 긍지가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MVP 선정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KBO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 앞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